

# 제16회 놀인 김환태 문학제 성료

기념식·제35회 김환태평론문학상·제6회 청소년문학상 시상·학술대회 등 열려

제16회 놀인 김환태 문학제가 지난 9일 무주 김환태문학관 영상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사)김환태문학기념사업회와 (재)한국문학평론가협회, 놀인문학회가 주최·주관하고 무주군과 한국문학비평학회, 설악만해사상선양회가 후원한 가운데 열린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사)김환태문학기념사업회 이봉명 이사장, (재)한국문학평론가협회 오형협 회장 등 90여 명이 참석해 기념식과 제35회 김환태평론문학상 및 제6회 청소년문학상 시상, 김환태 모소 참배와 학술대회 등에 함께 했다.

기념식에서 (사)김환태문학기념사업회 이봉명 회장은 "김환태 선생은 문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한 동시에 그가 남긴 문화적 유산은 오늘날 민족문화를 확립하는 기틀이 됐다"라며 "놀인 김환태 문학제를 통해 그의 정신을 계승하고 문학세계를 이끌어가는 데 흔들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한국문학 발전을 선도하고 한국문학 비평의 올바른 정신을 잇는 비평

가을 발걸음, 그의 업적을 기리는데 김환태 문학제 개최 의미가 있다"라며 "김환태 비평문학의 계보를 잇는 신예들이 김환태 문학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탄생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제35회 김환태평론문학상 수상의 영예는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솔기 교수가 "한국 근대 자유시의 원천과 그 실험들-최남선에서 김억까지"(소명출판, 2024)로 안았다.

박솔기 교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여러 선배 연구자의 뒤만 보며 묵묵히 따라가던 중에 수상의 기쁨을 안게 됐다"라며 "더욱 정진하라는 뜻으로 알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놀인은 '코토의 3년'이라는 수필에서 시가 마음을 감명시키던 순간을 '노래한 그 시간의 그 풍경'이라고 적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시가 단순히 말이 아니라 한순간의 우주를 경험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공부는 이 우주를 잡으려던 노력이었다"라고 전했다.

제6회 김환태청소년문학상 수상자로는 무주

고등학교 1학년 윤강 학생(나의 우주)이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의 주인공이 됐다.

이외에도 금상(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은 창원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세진 학생(햇빛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은상(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은 중앙고등학교 3학년 한상원 학생(남대천 구멍가게), 동상(무주군수상)은 부산일과학고등학교 2학년 오우성 학생(김환태, 무주 그리고 이야기의 조각들)이 선정됐다.

'1930년대 한국문단과 김환태의 비평'을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는 서울여대 남승원 초빙교수의 사회로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발표자로는 고려대학교 국문과 오형협 교수(문학평론가)와 경희대 국문과 장문석 교수, 인천대 국문과 강용훈 교수가 나섰으며 송실대 국문과 박동영 강사(문학평론가)와 한국의대 교양대학부 이성희 초빙교수(문학평론가), 대전대 한국어문학과 전철희 강사(문학평론가)가 토론자로 연대에 올라 의견을 나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전주문화재단, 수어 연극 '사라지는 사람들' 14일 개최

특별한 의미를 담은 수어 연극 '사라지는 사람들'이 오는 14일 전주한옥마을을 찾는다.

전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에게 우수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콘텐츠로 추진됐다.

연극 '사라지는 사람들'은 농·청각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핸드스피크'의 작품으로 2022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려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공연은 극한 상황에 처한 인간이 이기적

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수어와 음성으로 동시에 표현한다. 머리카락을 '뿜는' 것이 정상인 나라, 이와 반대로 머리카락을 '푸는' 것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두 개의 나라가 그들만의 정서, 권력, 사상을 두고 각자의 세계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치르는 '주인없음', 그리고 알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의 침략을 피해 도망쳐야만 하는 사람들의 탈출 이야기를 담은 '달빛 도망' 등 두 이야기를 한편에 담았다. 극을 통해 빛낸 현시대의 차별, 혐오 정서를 관객이

반추하게 하여 소통과 배려가 사회의 균열을 막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연은 오는 14일 전주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에서 오후 3시, 7시 30분 총 2회 열린다.

공연 관람료는 라면 1개며, 이렇게 모여진 라면은 다시 사회에 나눔 예정이다. 또한 극의 시나리오를 열린점자 작은도서관을 통해 점자책으로 출판, 필요한 기관과 개인에게 기증할 계획이다.

예매는 '전주티켓박스'(jticketbox.com)에서 가능하며, 현장을 찾은 관객에게는 '편지를 지운다'는 의미의 지우개를 나눠 줄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국립민속극악원, '꿈나무 무대 차세대 명인·명창' 출연자 모집

국립민속극악원(원장 김종현)은 오는 13일부터 27일 오후 4시까지 '2025 꿈나무 무대 차세대 명인·명창' 출연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전통 관소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2025년 2월 7일과 8일 오후 3시에 국립민속극악원 예음관에서 개최된다.

최종 선발된 출연자에게는 공연 무대에 오를 기회와 함께 소정의 출연료,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생부터 고3 학년까지로, 관소리 5바탕(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한국전통문화전당-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한국학과, 협약 체결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이 K-한지마을의 글로벌 거점공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당에 따르면 지난 1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한국학과와 업무협약을 맺고 조지은(Jean Kizer) 교수와 후속조치 사항을 세부적으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세미나·워크숍·문화행사 개최 △다양한 전통문화 예술 분야 탐구·기록 △전통문화 연구 프로젝트 진행 △전통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9~10월 옥스퍼드 대학교 예술대학 이언 케어(Ian Kizer) 학장 등이 K-한지마을

문화복합공간을 찾아 한지를 탐구하며 작품 활동 소재의 다양성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전당은 우수한지를 옥스퍼드대에 제공해 새로운 창작 소재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한지의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도영 원장은 "전주 혁신골에 위치한 K-한지마을 문화복합공간 방문 희망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글로벌 수준의 연구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한국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정석권 전북대 명예교수 개인전 개최

전주서화동사진미술관서 12~17일 '풍경산책(風景散策)'

정석권 전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가 오는 12~17일 전주서화동사진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다.

지난 8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개인전의 주제는 '풍경산책(風景散策)'이다. 사진을 통해 풍경과 인간의 소통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다. 그런데 작가가 이야기하는 풍경은 특별히 아름답거나 유명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산책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풍경을 말한다.

그는 지난 2011년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 방문교수로 시애틀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사진을 전시한 이래로 우리 주변의 일상적 풍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 후로 일간지에 꾸준히 사진과 글을 발표했다는데, 주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풍경이나 생활에 대한 사진과 그에 대해 느끼는 감성을 담았다.

특히 정 명예교수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풍경은 우리가 흔히 마주치는 시골의 논밭, 벌판에 서 있는 나무들과 같은 자연이다. 그는 일상 속의 소소한 풍경 속에서 발견되는 감성을 표현하고 이를 관람자들과 공



유하고자 한다. 또한 전시를 통해서 일상 풍경들의 소중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그에 따르는 생태적 윤리를 함께 느끼고자 한다.

정석권 명예교수는 "자연 속에서 산책이라는 행위를 통해 표현되는 예술작품은 인간의 감성적, 창조적 행위와 연관된다"며 "산책을 통해 풍경과 인간의 미적 소통과 상호적 교섭 관계가 이뤄진다면, 자연풍경과 그에 대한 인간의 인식, 표현 속에서 새로운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청년 참여작가 '이을·박경덕'

전북도립미술관, 우수 청년 작가 선정... 내년 11월 기획전 개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내년 11월 개최 예정인 '전북청년 2025' 참여작가로 이을(34, 회화·설치), 박경덕(30, 조각)을 선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는 유망한 청년 예술가를 발굴해 창작을 지원하는 '전북청년' 공모로, 전북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젊은 미술가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고자 하는 취지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전북청년' 전시는 2008년에 처음 시작된 후, 2015년부터는 본격적인 공모 방식을 통해 우수한 청년 작가를 선정하는 기획전으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총 11의 작가가 지원,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3명의 심사위원(위원장 심혜련, 이정현, 채영)이 인터뷰 심의를 거쳐 5명을 선정, 이후 선정자의 작품을 방문하여 작가의 작품세계와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 2명의 작가가 선정됐다.

먼저, 이을은 전북대학교 서양화를 전공 후



중양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석사를 거쳐 전북대학교 서양화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개인전 6회를 가졌다. 작가는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전북 미술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

이이 박경덕은 전북대학교 조소를 전공 후 동대학원 석사를 수료하고 4회 개인전을 가졌다. 작가는 "전북청년 작가 지원을 준비하며 스스로의 역량과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찾았으며, 전시를 통해 예술에 대한 실현정신을 이어가며 더욱 준비된 모습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 작가는 신작 제작지원금 500만원과 비평가 매칭, 전시 준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약 1년간 작품 제작에 매진할 예정이다. 완성된 작품들은 2025년 11월 전북도립미술관 본관에서 열리는 '전북청년 2025' 기획전을 통해 공개된다.

/장은성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